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 제34차 회의		
일시	2024.5.02(목) 10:30~12:3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안건	<p><input type="checkbox"/> 자문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용도 변경 건(김순용 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신호정 대외협력처장</li> </ul> </li> <li>○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무전공)정원조정 및 학부대학 설립(안)</li> <li>○ 2025학년도 첨단분야정원조정 및 인공지능학과 신설(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이명진 교무처장</li> </ul> </li> <li>○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명칭 변경</li> <li>○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非첨단분야 학과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정용훈 교학처장</li> </ul> </li> <li>○ 2023 교비 회계결산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박철범 총무처장</li> </ul> </li> </ul>		
논의사항 (요지)	<p><input type="checkbox"/> 보고사항 - 제33차 회의록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가 제33차 회의록을 요약하여 설명함.</li> </ul> <p><input type="checkbox"/> 의장 호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33차 회의 결과에 따라 의장 호선까지 회의를 진행함.</li> <li>○ 평의원 간 추천에 의하여 강선보 평의원을 의장으로 호선함.</li> </ul> <p><input type="checkbox"/> 자문사항1 - 기부금 용도 변경 건(김순용 기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함.</li> <li>○ 문형구 평의원이 건축기금으로 지정된 10억을 옮기면 IT교양관 건축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이 건축기금의 경우 선지급을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현재 이자가 꽤 붙은 상태라서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함.</li> <li>○ 문형구 평의원이 본인이 이사로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알아보니 기부자가 일반기탁에서 지정기탁으로 바꾸길 원할 때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가급적 수용한다고는 하는데 만약 회계 처리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다른 재원에서 끌어와야 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정리가 필요하다는</li> </ul>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 제34차 회의		
일시	2024.5.02(목) 10:30~12:3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p>의견을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이 장학금이나 특수목적기금의 경우에는 사용내역이 분명히 나오고 특히 장학금의 경우는 직접 지급 대상자가 있기에 용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해당 건은 건축기금의 특수성과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었으며 만약 기부자의 요청을 거부할 시에는 장기적인 기금 모금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교육부 규정에 맞게 용도 변경을 해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기에 대학평의원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함.</li> <li>○ 김진배 평의원이 현재 건축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용도 변경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li> <li>○ 강선보 의장이 학교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이 절차에 따라 요청서를 공문으로 받았고 교육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 대학평의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재단이사회를 거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8월말 경에 완료되는 상황이며 기부자 본인도 시간이 상관없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함.</li> <li>○ 강선보 의장이 학교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기부금을 돌려받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기부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김효민 평의원이 기부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는 고려하지 않고 납입한 금액만 용도 변경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이 장학금이나 학생 활동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해당 기금은 건축기금 형태로 남아 있던 돈이기 때문에 김순용 교수님께 투명하게 내용을 전달했고 기부자가 최종적으로 용도 변경하길 원해서 이자를 제외하고 납입한 금액만큼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의대로 특정하여 기부된 금액 중 그 이자는 제외하고 기부금 원금만 법인에서 의대로 넘어온 것으로 기제가 되어있고 해당 기부금에 대한 이자는 어디로 귀속되는 지 기제가 되어 있지 않아 이자가 귀속된 기관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문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이자 금액도 동일하게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는지</li> </ul>		

# 회 의 록

회 의 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 제34차 회의		
일 시	2024.5.02(목) 10:30~12:30	장 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p>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이자도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이 이제 장학금이나 원금 보전형 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다 원금 보전형 기부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의 이자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관리 권한은 대외협력처에서 관리하지 않고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함.</li> <li>○ 김효민 평의원이 소속학과 자체 장학기금 관련해서 일정 금액까지 적립하고 집행을 위해 이자 관련 문의를 수차례 하였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 들은 상태이므로 기부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단과대학 기금은 본부(총무처)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현재 5~6개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고 그 이자는 원금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으며 단과대학 기금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본교는 금리에 대한 입찰을 받는데 규모가 큰 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본부가 좀 더 큰 규모로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과대학 기금별로 이자를 배분한다고 설명함.</li> <li>○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이 인봉장학금, 해성장학금같은 이름이 정해져 있는 원금 보존형 기금은 이자가 발생하면 기획예산처 산정을 통해 해당 기금에 적립이 되고 기부자들에게 사용 내역 보고 시 이자가 붙은 금액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함.</li> <li>○ 강선보 의장이 기부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대하여 본부의 검토를 요청하며 해당 안건에 대하여 평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문을 완료함.</li> </ul> <p>□ 자문사항2 -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무전공)정원조정 및 학부대학 설립(안), 2025학년도 첨단분야정원조정 및 인공지능학과 신설(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명진 교무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함.</li> <li>○ 강선보 의장이 대학에서 가장 예민하고 첨예한 대비 논쟁을 가져오는 분야가 해당 안건과 동일한 정원 조정과 전공 신설인데 각 학과별, 단대별로 이미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 교수의회나 교무위원회를 이미 다 논의를 거쳐서 넘어온 사항인데 김서영 평의원, 김혜민 평의원이 학생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달라</li> </ul>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 제34차 회의		
일시	2024.5.02(목) 10:30~12:3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p>고 요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서영 평의원이 네모 클래스 활성화를 통해서 수요가 많은 강의에 대해 수강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무전공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1,2 강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해 분반을 나누거나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학년 진급과 졸업과도 연관 되어 있는 1,2학년 전공 과목 위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원 외 입학생과 관련하여서도 1학기보다 2학기에 정원의 입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온라인 강의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강선보 의장이 이명진 교무처장에게 김서영 평의원이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함.</li> <li>○ 김혜민 평의원이 해당 건은 학부 학생회 측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설득력 있고 조교 입장에서 새로운 학과가 신설이 되고 교원도 늘어나고 학부 학생들도 수업을 원활하게 듣기 위해서는 조교 증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등록금에 비례해서 장학금이나 조교도 증원이 추진되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김효민 평의원이 학부 대학 신설 관련해서 정원 36명이 단과대학 정원으로 적절하지와 해당 발표 자료가 교수의회 자료에서 수정된 버전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이명진 교무처장이 자유전공학부와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단지 자유전공학부가 2학년 때 진입할 수 있는 전공 개수가 제한적이었다면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100% 확대를 통해 1유형으로 교육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교육부가 대학에서 무전공을 계속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해당 방안은 일종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고 교양교육원이 교양 교육만 담당한다면 학부 대학은 교양 교육뿐만 아니라 1학년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충분하고 체계적인 안내를 받는 차이가 있다고 답변함.</li> <li>○ 김효민 평의원이 교수의회에서 법전원 교수님께서 지속적인 항변을 하였는데 학부 대학 정원이 36명이고 자유전공학부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안)이 올라왔으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이 버전이 바뀐 것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함.</li> <li>○ 이명진 교무처장이 자료는 동일하며 법전원에서 학부 대학에 대해 우려를 갖는 것은 입시 시장에서 학부 대학에 비해서 자유전공학부의 상대적인 비교 우</li> </ul>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제34차 회의		
일시	2024.5.02(목) 10:30~12:3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p>위라는 부분에서 염려한 것으로 기억하며 차이점은 자유전공학부는 원칙적으로 공공 부분이나 법률적인 교육들을 강조한다면 학부 대학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 해당 방안이 자유전공학부나 법전원 교수님들이 입학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님 평의원이 학부 대학하고 자유전공학부의 차이점은 알겠지만 수험생들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기에 자유전공학부는 사실상 공공 부분 리더십 과정을 필수로 하고 있기에 프리로스쿨 같은 학과인데 이번에 아예 학부 대학들이 신설돼서 전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자유전공학부의 성격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이명진 교무처장이 본교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갈 때 조건 중 하나가 원칙적으로는 학부에서 이제 법률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상황이며 현재 법전원 내에서도 자유전공학부의 방향성에 대하여 아직 명쾌하게 단일 안이 나오지는 않았기에 논의된 결과가 올라오면 본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함.</li> <li>○ 강선보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전체 평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문을 완료함.</li> </ul> <p><b>□ 자문사항3 -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명칭 변경,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非첨단분야 학과 증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용훈 교학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함.</li> <li>○ 강선보 의장이 학과 신설이나 정원 조정은 학과 승인을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사안인데 학과에서 일단 동의가 되어서 교무위원회까지 거친 사안이라서 가장 힘든 난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김서영 학생회장이 학생 대표로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요청함.</li> <li>○ 김서영 의장이 전체적으로 준비를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에 별도의 의견은 없다고 답변함.</li> <li>○ 강선보 의장이 학교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일심동체가 되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렇지 않으면 뜻을 맞추어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대학원 총학생회장에게 의견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조은영 평의원이 최근의 교양 교육 개편 관련해서 교양 필수로 창업과 관련된</li> </ul>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제34차 회의		
일시	2024.5.02(목) 10:30~12:3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p>소프트웨어 코딩 인공지능 생명과학을 포함한 5개 과목에 이제 12학점을 배정하고 인문학 관련 핵심 교양 같은 경우에는 6학점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었다고 알고 있고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학과 관련한 교양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졸업이 가능하다는 기사도 봤는데 사회 흐름에 맞춰서 코딩이나 생명과학 등의 부분을 도입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나 인문학이 도외시되고 있는 게 아닌지, 교양 교육 개편 시 여러 가지 이유로 조교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명진 교무처장이 최근 교양 교육 개편 관련해서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부분을 강화하였는데 기존에도 여러 단과대학 1~2학년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던 것을 통합한 것이고 핵심 교양과정 개설이 급속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 요건을 못 채우는 학생들이 속출해서 교양 선택으로 해당 요구를 반영한 부분이며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이 인문학 과정을 전혀 수강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학문세계 탐구 1, 2는 물론 전공 필수와 관련된 학문적인 탐구에서도 인문학, 사회과학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학부 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한 교양 교육의 고도화와 관련되어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함.</li> <li>○ 김효민 평의원이 대학원 총학생회장 의견에 공감하며 필수를 무엇으로 지정할지는 상징성이 매우 크고 중요하기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시급히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강선보 의장이 해당 건에 대하여 전체 평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문을 완료함.</li> </ul> <p><b>□ 자문사항4 - 2023 교비 회계 결산 보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철범 총무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함.</li> <li>○ 문형구 평의원이 수입 중에서 투자 자산 수입이 전년도 때는 13억 7,500만원 이고 2023년도에는 제로인데 본교에서 별도의 투자는 하지 않는지 질의함.</li> <li>○ 박철범 총무처장이 2022년도에는 기부를 받았던 주식 매각을 통한 수입이 있었는데 2023년에는 그런 수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돈이 조금 남는 경우에는 정기에금에 넣어둔다고 답변함.</li> </ul>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 제34차 회의					
일시	2024.5.02(목) 10:30~12:3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형구 평의원이 2022년도에 비해 일반 기부금이 70%나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li> <li>○ 박철범 총무처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모두 늘어났고 기부금의 모든 항목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2022년 기부금 수입이 460억원 정도였고 통상 450억~460억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2023년에는 800억원 대로 증가했는데 총장님께서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함.</li> <li>○ 강선보 의장이 해당 건에 대하여 전체 평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문을 완료함.</li> </ul>					
기타사항	<p><input type="checkbox"/> 차기(35차) 대학평의회 일정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23일(목) 11시(오찬 포함)</li> </ul> <p><input type="checkbox"/> 조운정 평의원이 아래 내용을 요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평의회 구성 단위 변경(세종학생대표) 건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li> <li>○ 본교가 강점이었던 교양 교육 특히 인문사회 계열 강의가 셀프러닝, 온라인 러닝으로도 가능한 컴퓨터 코딩 등이 들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문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한 철학적 사고인데 본교가 강점이었던 그러한 교육과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한 추가 논의.</li> </ul>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14 명	참석내역	강선보, 문형구, 곽영길, 한운상, 김진배, 김효민, 조운정, 김상덕, 임금님, 김혜민, 조은영, 김서영	불참내역	손승현, 홍석희
	참석자	12 명				
	불참자	2 명				
학교측 참석자		유용근 기획예산처장, 유신열 기획팀장				
간사 (기획팀 차장)		유종복 (인)	의장		강선보 (인)	

평의원

평의원